

담배와 술

박동섭
전 중재위원
법무법인 새한양
대표변호사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는 말도 있고 ‘세 살 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도 있다. 그래서 습관은 좋은 나쁜든 그것이 한 번 몸에 배면 이를 바꾸기 어렵다. 담배나 술 같은 기호품을 좋아하는 습관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담배 같이 끊기 쉬운 건 없더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끊었어.”라고 말하였더니, 줄담배를 피웠다는 이야기이다. 우리나라의 문인 공초 오상순 선생도 유명한 애연가라 하루 담배 20갑을 피우고 게다가 공초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끝까지 피우셨다고 한다. 그 바람에 아호도 공초(空超)라고 지으셨단다. 전 매청에서는 어느 해 공초 선생께 백양 담배를 몇 상자 증정하였다는 말도 들었다.

각설하고 내가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것은 대학 3학년 때이니, 늦게 배운 셈이다. 그러나 담배를 그리 많이 피운 편은 아니었다. 담배 1갑을 1주일 동안 하루 2, 3개피씩 나누어서 피웠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 담배라는 놈을 피워보니, 그 나름대로 맛과 맛도 있지만, 좀 복잡하여지기 시작하였다. 담배를 피우려면 우선 라이터, 재떨이가 필요하며, 호주머니는 담배부스러기로 지저분하여 지고 몸에 담배냄새가 나고, 나아가 용돈도 야금야금 줄어들었다. (담배를 둘러싼 난센스 퀴즈: 담배는 있고 성냥 없는 사람은? 불필요한 사람. 담배는 없고, 성냥만 있는 사람은? 불만 있는 사람. 담배도 성냥도 없는 사람은? 입만 있는 사람). 그래서 담배를 끊기는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금연은 쉽지 않았고 애연가들이 “식후 불연(不煙)이면 3초 이내 즉사”라고 하면서 말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그러니까 1975년 새해를 기하여 나는 단호하게 담배를 끊었다. 그 후 간혹 꿈속에서나 담배를 한두 번 피워보기도 하였지만 다시는 담배를 입에 대지 않았다. 금연의 계기는, J목사님이 주신 「술과 담배」라는 책을 읽고 나서부터다. 그 책은 술과 담배의 해독을 알리기 위하여 의학박사님들이 라디오로 전국에 방송한 내용을 편집한 책이었다. 그 내용의 일부를 보면, 사람들이 연탄불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 가스는 무서워하면서, 담배연기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는 왜 무서워하지 않는지 이상하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폐암에 걸릴 확률은, ‘담배 안 피우는 사람’에 비하여 4배나 높다(폐암 발생원인의 55.6%가 흡연이라는 발표도 나

옴)는 등이다.

내친 김에 나는 술도 몇 달 끊었다. 회식자리에서 “한약을 먹고 있는 중이라 술은 좀...”하고 사양하면, 동료는 “누구는 어디 한약 한 번 안 먹어본 사람이 있나?”고 하면서 술을 강권한다. 특히 S 지원장님은 “박 판사는 담배 끊고 술 끊고, 이제는 곡기만 끊으면 되겠구먼!” 하시면서 못내 서운해 하시었다. 술과 담배를 끊었으니, 이제는 밥숟가락만 놓으면 되겠다(곧 죽어라?)는 말이었다. 동료들은 한바탕 웃었지만, 언중유골이었다.

그 해 5월 경 장인 영감님(당시 K고등법원장)께 담배와 술을 끊었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애주가이신 장인어른은 “왜 어디 몸이 아프냐?”고 물으시었다. 자초지종을 아뢰었더니, “아범아, 어지간하면 술은 재개하지 그래. 법관에게 사람들은 접근하기 어려워한단다. 손쉽게는 담배 1대 하시지요? 하고 말을 걸어오는데 ‘저는 담배 안 합니다’고 거절하고, ‘술 1잔 하시죠’하고 권하면 ‘술도 못합니다.’하고 또 거절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무안하겠니?” 하시면서 은근히 금주(禁酒)를 말리시었다. 내가 법관으로 임명될 당시 장인어른은 “제발 떨어진 술은 마시지 말라”고 당부하시었다. “떨어진 술은 무슨 술입니까?”하고 물었더니, “30대 초반의 젊은이가 오늘월 긴긴 하루 일하고 저녁 때가 되면 목이 칼칼하고 술 한 잔 생각나지. 그 때 친한 변호사나 사업가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이나 같이 하실까요.’하면서 얻어먹는 술이 바로 떨어진 술이라고 하시었다. 나는 판사가 된 이후 퇴직할 때까지 그 말씀을 명심하고 「떨어진 술」은 일체 마시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지냈다. 동료들의 회식자리에서 나는 상습도주범(?)으로 낙인찍혔다. 여럿이서 술 마실 때는 슬그머니 도망가기도 쉬웠다. 장인 영감님은 퇴근하시면 집에서 저녁 반주를 즐겨 드시었다. 이를 본받아 나도 주말이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만 포도주를 조금 마신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딸들을 시집보내고 나니 이제 내가 장인이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사위들이 모두 담배를 피울 줄 모르고, 술도 권커니 잣커니 하며 마실 정도는 못된다. 맥주 1캔이나 포도주 1잔이면 족하다. 가끔 사위들과 건배하면서 술잔을 부딪치려고 하면, 6살짜리 손자가 자기도 우유 잔을 들고 한뭇 끼겠다고 하니 그 모습이 그저 귀엽기만 하다.

